

□ 찾아온 닷가 □ □

프랑스에 93살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웁긴글>

위 글을 읽고 하루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위대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